

蘇軾의 龍虎鉛汞說을 통한 丹溪虎潛丸 해석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殷哲政¹*

A Study on the Danxihuqianwan(丹溪虎潛丸) analyzed by the dragon-tiger and lead-mercury theory(龍虎鉛汞說) of Su Shi(蘇軾)

Eun Seok-min¹*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onstitution of Danxihuqianwan(丹溪虎潛丸) with the dragon-tiger and lead-mercury theory of Su Shi(蘇軾). It would help understand more the usage of Danxihuqianwan over the scope of Sa-nam and bo-buk(瀉南補北) theory that has been well known until now.

Methods :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explanation about Danxihuqianwan in *Yixuerumen*(醫學入門) that had used the dragon-tiger and lead-mercury concept with the theory of this kind that appears in *Sushenliangfang*(蘇沈良方).

Results & Conclusion: Based on the internal alchemy theory, Su Shi proclaimed that dragon[龍] corresponds to mercury[汞]-Jeong(精)-Hyul(血), and tiger[虎] corresponds to lead[鉛]-Qi(氣). It is said to be in good position that dragon appears from fire and tiger is hidden in water. Su Shi also explained the relation between dragon and tiger as the relation of water[水] and fire[火] between heart and kidney. As Li Yan(李樾) did, the dragon-tiger theory could be applied to the analysis about Danxihuqianwan, and it explains well the effect of this prescription that makes tiger hidden in water and thus help cure the diseases such as atrophy syndrome.

Key Words : dragon[龍], tiger[虎], mercury[汞], lead[鉛], Huqianwan(虎潛丸), Su Shi(蘇軾), internal alchemy[內丹]

1. 서 론

虎潛丸은 중국 元代의 의가인 朱丹溪가 痿證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 낸 처방으로서, 이후 이와 유

* 교신저자 : 은석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eskmin@woosuk.ac.kr Tel : 063-290-1475

접수일(2013년 7월25일), 수정일(2013년 8월13일), 게재확정일(2013년 8월16일).

사한 효능을 지닌 같은 이름의 虎潛丸이 다수 만들어지는 등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痿證에 대해 丹溪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滋陰學說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논의들을 전개하면서 痿證의 다양한 병기와 그에 따른 치법들을 연구하였다. 丹溪의 痿證 치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施仁潮의 ‘朱丹溪論治痿證探要’와 崔永安 등의 ‘從朱丹溪“瀉南方，補北方”論痿證的治療’ 등을 들 수 있는데¹⁾, 이에 따르면 丹溪는 『素問痿論』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肺熱葉焦’, ‘治痿獨取陽明’ 등의 痿證 관련 병기 및 치법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腎水의 부족을 痿證의 주된 병기로 하면서 이에 대해 이른바 ‘瀉南補北’의 치법을 제시하였다. 즉 丹溪는 腎水의 부족이야말로 痿證의 병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의 중심인 肺熱의 뿌리가 되는 것임을 논하였으며, 그의 ‘瀉南補北’의 치법은 腎水를 補하고 肺熱을 瀉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治痿獨取陽明’의 설에도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 虎潛丸은 바로 이와 같은 丹溪의 痿證 치법을 대표하는 처방이라 할 수 있다.

虎潛丸은 오늘날에도 임상에서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虎潛丸 자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이를 사용한 임상례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즉 虎潛丸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丹溪의 ‘瀉南補北’의 치법의 한 예로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거나 또는 虎潛丸을 활용한 임상례에 대한 분석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역대 의서들 중에는 虎潛丸에 대해 道敎의 內丹理論을 통한 해석을 가한 것들이 있는데, 즉 內丹理論에서 비롯된 龍虎鉛汞의 설을 원용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明代의 의가인 李梴의 『醫學入門』을 들 수 있다.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虎潛丸과 관련하여 丹溪의 瀉南補北의 치법을 언급하는 한편으로 道敎內丹思想 중의 龍虎鉛汞의 설에 기초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醫學入門』 卷首의 ‘釋方’에서 “凡人龍常出于水，龍飛而汞輕。虎常出于

火，虎走而鉛枯，虎潛火伏而滋陰也。”이라 하면서, 虎潛丸의 滋陰의 효능을 龍虎鉛汞의 설을 바탕으로 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醫學入門』에서 虎潛丸에 대한 두 갈래의 方論을 실어 놓은 셈인데, 그 가운데 丹溪의 瀉南補北의 치법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龍虎鉛汞의 설에 기초한 해석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龍虎鉛汞의 설을 통해 虎潛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먼저 龍虎鉛汞의 설 자체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해 본 논고에서는 宋代의 의서인 『蘇沈良方』에 실려 있는 龍虎鉛汞의 설을 그 기초로 삼고자 한다. 왜냐하면 『蘇沈良方』은 의서들 가운데 龍虎鉛汞의 설이 구체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의서인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李梴이 龍虎鉛汞의 설을 통해 虎潛丸을 해석한 부분의 문구가 다른 대표적인 內丹저작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蘇沈良方』에서는 잘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설의 내용은 본래의 道敎적인 내용에 儒家적인 해석이 가미된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다.

『蘇沈良方』은 宋代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沈括과 蘇軾의 의학 및 양생 관련 저술 내용을 모아놓은 저작으로서, 그 가운데 龍虎鉛汞의 설은 蘇軾의 저술로 확인되어 있다. 蘇軾(1037-1101)은 宋代의 문장가이자 관료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한편으로 의학과 양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도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의학계에서는 그의 의술이 담겨 있는 『蘇沈良方』이라는 저작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蘇軾과 관련된 연구는 『蘇沈良方』에 관한 것들을 주로 찾아볼 수 있다²⁾. 한편 그의 양생사상에 대한 논의들은 인문학 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道敎

1) 施仁潮. 朱丹溪論治痿證探要. 江蘇中醫雜誌. 1936年 3期/
崔永安, 左小東, 王樹槐. 從朱丹溪“瀉南方，補北方”論痿證的治療. 江蘇臨床醫藥雜誌. 2000年 第4卷 第1期.

2) 대부분 『蘇沈良方』에서 蘇軾이 저술한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李淑慧의 것이 대표적이다. (李淑慧. 『蘇沈良方』作者區分新考. 中醫文獻雜誌. 2010年 第4期. pp.19-21.) 그 밖에 蘇軾의 저술들에 담겨 있는 그의 의료활동 관련 기록들을 정리한 연구들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張瑞賢, 張衛. 蘇軾的醫療活動. 江西中醫學院學報. 2005年 10月. pp.21-25./ 原所賢, 暴連英. 蘇軾筆記雜著中的醫藥學史料探析. 中醫文獻雜誌. 2004年 第2期. pp.21-22.)

思想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그의 양생론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들이 있어 온 것을 볼 수 있다³⁾. 그런데 본 논고의 중심이 되는 蘇軾의 龍虎鉛汞說 자체의 이론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龍虎鉛汞의 설은 본래 道教의 內丹思想에서 비롯된 것인데, 蘇軾의 龍虎鉛汞說이 內丹思想에 바탕을 두면서도 그 나름의 독특한 이론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蘇軾의 생애 및 학술사상과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蘇軾의 龍虎鉛汞說 안에서 龍虎 내지 鉛汞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한 그것이 虎潛丸 내지 丹溪의 痿證 치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고에서는 虎潛丸에 대한 李梴의 논의와 아울러 『蘇沈良方』의 내용을 중심으로 蘇軾의 龍虎鉛汞說의 이론적 맥락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그 이론적 맥락이 虎潛丸과 관련하여 丹溪의 瀉南補北의 치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丹溪의 虎潛丸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의 陰陰學說을 더 깊이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丹溪虎潛丸에 대한 李梴의 方論

虎潛丸에 대해 李梴이 논한 바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丹溪의 저작에서 痿證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虎潛丸의 예를 보면, 『丹溪心法』에는 “虎潛丸治痿與補腎丸同”⁴⁾이라고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丹溪治法心要』의 경우에는 『丹溪心法』의 예와 같이 “虎潛丸治痿與補腎丸同”이라는 내용과 함께 虎潛丸의 구성약물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虎潛丸은 黃柏(酒炒) 半斤, 龜板(酥炙) 四兩, 知母(酒炒) 三兩, 熟地黃 二兩, 陳皮 二兩, 白芍藥 二兩, 鎖陽 一兩半, 虎骨(炙) 一兩, 乾薑 半兩을 가루내어 술이나 죽과 함께 빻어 丸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

李梴은 『醫學入門』의 ‘雜病用藥賦’에 虎潛丸을 丹溪의 원방대로 실어놓는 한편 卷首의 ‘釋方’에서 “凡人龍常出于水, 龍飛而汞輕. 虎常出于火, 虎走而鉛枯, 虎潛火伏而滋陰也.”⁶⁾라 하였고, 또한 痿證의 치법과 관련하여 “瀉南則肺金清而東方不旺, 脾不傷而宗筋潤矣. 補北則心火降而西方不虛, 肺不焦而營衛通矣. 清燥湯, 虎潛丸, 腎氣丸, 調和金水二臟, 治痿之大經也.”⁷⁾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李梴은 痿證과 관련하여 丹溪의 瀉南補北의 관점에서 虎潛丸을 언급하는 한편으로 虎潛丸의 滋陰의 효능을 龍虎鉛汞의 설을 통해 해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 龍虎鉛汞의 설을 통한 해석은 지금까지 자세히 논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李梴은 “凡人龍常出于水, 龍飛而汞輕. 虎常出于火, 虎走而鉛枯, 虎潛火伏而滋陰也.”라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凡人龍常出于水, 龍飛而汞輕. 虎常出于火, 虎走而鉛枯”라고 한 부분은 『蘇沈良方』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蘇沈良方』에는 “世之不學道者, 其龍常出于水, 故龍飛而汞輕. 其虎出于火, 故虎走而鉛枯. 此生人之常理也. 順此者死, 逆此者仙. 故眞人之言曰, 順行則爲‘人’, 逆行則爲‘道’.”⁸⁾라고 한 내용이 있으며, 이 내용에 의하면 ‘龍出于水’와 ‘虎出于火’의 상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리과정이며, 이런 과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은 이런 상태에逆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며, 이와 같은 이치에 대해 옛 眞人の 말을 빌어 표현하기를 順行하는 것은 ‘人’이 됨이요 逆行하는 것은 ‘道’가 됨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人’이라 한 것은 ‘世之不學道者’ 내지 ‘生人之常理’의 경우에 해당하는 바를

3) 王啓鵬과 昌慶志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王啓鵬, 論蘇東坡的養生思想. 黃岡職業技術學院學報. 2011年 2月. / 昌慶志, 蘇軾貶謫生涯與嶺南養生文化. 柳州師專學報. 2010年 10月.)

4) 朱丹溪 著, 劉鴻達 點校. 丹溪心法.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179.

5) 朱丹溪 述, 劉鴻達 點校. 丹溪治法心要.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377.

6) 李梴, 醫學入門.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4.

7) 李梴, 醫學入門.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929.

8)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75.

간략하게 집약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李梴의 문장에서는 이 ‘人’자를 앞에 두어 그 내용을 간략히 하는 한편으로 그 뒤에 “虎潛火伏而滋陰也”라는 李梴 자신의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虎潛丸의 滋陰의 효능을 단적으로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李梴이 虎潛丸을 해석하는 데 원용한 龍虎鉛汞의 설을 『蘇沈良方』에서 찾아보면 「續養生論」과 「龍虎鉛汞說」의 두 편의 문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蘇沈良方』이 蘇軾과 沈括의 두 학자의 저술내용을 모아놓은 것이므로 이 두 편의 문장을 저술한 이가 둘 중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蘇軾이 저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두 편의 내용은 蘇軾의 다른 문집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梁昆生에 의하면 「續養生論」은 『東坡後集』卷九과 『三蘇集·東坡集』卷七十에 수록되어 있는 「續養生論」과 동일하며, 「龍虎鉛汞說」은 『東坡續集』卷八과 『三蘇集·東坡集』卷七十에 있는 「龍虎鉛汞說」과 동일하다.⁹⁾ 이를 통해 그 내용이 蘇軾에 의해 저술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醫學入門』 이후로도 虎潛丸을 龍虎의 설을 통해 논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清代의 저작인 『醫宗金鑑』 내의 『刪補名醫方論』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王又原의 해석을 보면 “『道經』云, 虎向水中生, 以斯爲潛之義焉夫! 是以名之曰虎潛丸.”¹⁰⁾이라 하여, 虎潛丸이라는 方名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虎向水中生’이라는 표현을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虎向水中生’이라는 표현은 『蘇沈良方』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虎로 표현되는 기운이 水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生함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미로부터 方名에 ‘虎’와 ‘潛’의 글자가 들어간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葉仲堅의 해석은 조금 더 상세한데, 즉 “是方以虎名者, 虎於獸中稟金氣之至剛, 風生一嘯, 特爲肺

金取象焉. 其潛之云者, 金從水養, 母隱子胎, 故生金者必麗水, 意在納氣歸腎也.”¹¹⁾라고 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虎는 지극히 강맹한 성격의 金氣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한편으로 『周易』의 『文言傳』에서 “雲從龍, 風從虎”¹²⁾라 한 것을 참고해 볼 때 그 강맹한 金氣는 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뒤를 이어 潛의 의미에 대해 ‘金從水養’과 ‘母隱子胎’ 등의 개념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金이 그의 자에 해당하는 水에서 길러지는 이치를 말한 것이다. 특히 ‘母隱子胎’의 표현은 일찍이 『周易參同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¹³⁾, 母가 子의 품 안에서 길러지는 이치를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金은 반드시 麗水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千字文』에서 “金生麗水”라고 한 것으로부터 원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麗水는 흔히 중국에서 金이 많이 산출되는 곳으로 알려진 雲南 지역의 麗江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급되지만, 여기에서는 단지 水 안에서 金이 生하는 이치를 논하기 위한 필요에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肺의 氣가 腎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이른바 ‘納氣歸腎’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葉仲堅은 虎潛丸을 구성하는 약물들의 효능을 설명해 놓았는데, 그는 虎潛丸의 구성약물 가운데 龜板과 黃柏이 중심이 되며, 이는 痿證에 있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龜板은 北方을 상징하며 眞陰을 크게 補하는 효능이 있고, 黃柏은 腎과 膀胱의 陰이 부족해진 것을 補함으로써 足膝 간에 기력이 샘솟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¹⁴⁾. 熟地黃과 知母는 각각 龜板과 黃柏을 보좌하고, 當歸와 芍藥 및

11) 맹용재 역. 산보명의방론. 한국한의학회연구원. 2011. p.76.
12) 金赫濟 校閱. 周易. 明文堂. 1997. p.12.
13) 潘啓明. 周易參同契解讀. 光明日報出版社. 2005. p. 143.
“知白守黑, 神明自來. 白者金精, 黑者水基. 水者道樞. 其數名一. 陰陽之始, 玄含黃芽, 五金之主, 北方河車. 故鉛外黑, 內懷金華. 被褐懷玉, 外爲狂夫. 金爲水母, 母隱子胎, 水爲金子, 子藏母胞.”
14) 맹용재 역. 산보명의방론. 한국한의학회연구원. 2011. p.76.
“龜應北方之象, 稟陰最厚, 首當向腹, 善通任脈, 能大補眞陰, 深得夫潛之意者. 黃藥味厚, 爲陰中之陰, 專補腎膀之陰不足, 能使足膝中氣力涌出, 故痿家必用二者爲君, 一以固本, 一以治標, 恐奇之不去, 則偶之也.”

9) 梁昆生. 『蘇沈良方』中蘇軾撰述考. 雲南中醫學院學報. 1987年 第10卷 第2期. pp.54-55.

10) 맹용재 역. 산보명의방론. 한국한의학회연구원. 2011. p.76.

陳皮 등으로 氣血을 도우며, 鎖陽으로 陽의 발생을 돕는다. 虎骨은 熱로 인해 생겨나는 風이 관절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이를 몰아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와 같은 논의를 생각해 볼 때, 虎潛丸에서 강맹한 金의 기운을 발휘하는 약물은 虎骨이 되며, 이 虎骨은 龜板과 黃柏이 水를 補하는 효능에 힘입어 그 金의 기운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3. 蘇軾의 龍虎鉛汞說

虎潛丸의 효능이 龍虎鉛汞의 설을 통해 설명되고 있고 또한 그 설이 蘇軾의 저작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蘇軾의 龍虎鉛汞說은 어떤 이론적 맥락을 지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龍虎鉛汞의 설은 본래 道教의 內丹思想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蘇軾의 저술에 담겨 있는 龍虎鉛汞說은 道教 內丹思想의 사상적 맥락 내에서 어떤 학술적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먼저 蘇軾의 龍虎鉛汞說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어 道教內丹思想 내에서의 龍虎鉛汞說의 기원과 이론적 맥락을 바탕으로 蘇軾의 龍虎鉛汞說의 이론적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蘇沈良方』에서 蘇軾의 龍虎鉛汞說은 「續養生論」과 「龍虎鉛汞說」의 두 편의 문장에 담겨 있는데, 두 편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續養生論」의 내용이 蘇軾의 龍虎鉛汞說의 이론적 맥락을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蘇軾은 논의 중에 儒家와 道家의 사상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 儒家의 논의에는 흔히 春秋時代 子產의 ‘水火之喻’로 불리는 것과 漢代 翼奉의 六情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道教의 龍虎鉛汞의 설을 결합시켜 논하고 있다. 이에 그 내용을 둘로 나누어 子產과 翼奉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 이를 바탕으로 蘇軾이 어떻게 龍虎鉛汞의 설을 구성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子產의 水火之喻와 翼奉의 六情

蘇軾은 「續養生論」에서 먼저 春秋時代 鄭나라 子產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였다.

“鄭子產曰, 火, 烈者, 人望而畏之. 水, 弱者, 人狎而玩之.”¹⁵⁾

劉曉東에 의하면 蘇軾이 인용한 윗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는 『左傳』과 『韓非子』가 있다¹⁶⁾. 『左傳』과 『韓非子』의 내용을 보면, 蘇軾에 의해 인용된 부분은 子產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子大叔에게 남긴 말 중의 일부로서, 자신의 뒤를 이어 정치를 맡게 될 子大叔에게 子產이 ‘寬’과 ‘猛’의 개념을 통해 정치의 방법론적인 면을 설파한 것이다. 『左傳昭公二十年』에 의하면 子產은 ‘寬’의 정치를 ‘猛’의 정치보다 우위에 두기는 하였으나 백성들의 속성상 ‘寬’의 정치가 펼쳐지기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子大叔은 ‘猛’보다는 ‘寬’의 정치를 펴고자 하였으나 이로 인해 도적이 창궐하는 등 어려움에 빠지자 子產의 유지를 받들지 않았음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¹⁷⁾. 그리고 『韓非子』의 경우는 子產이 엄한 정치를 강조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¹⁸⁾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寬과 猛의 정치가 子產에 의해 水와 火의 비유로 예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火는 그 세가 烈하므로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지만 水는 그 세가 弱하므로 백성들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보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이

15)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4.

16) 劉曉東, 試論儒家語境下水火之喻的本義消解. 史學月刊. 2006年 第3期. p.33.

17)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4. p.1106. “鄭子產有疾, 謂子大叔曰, ‘我死, 子必爲政. 唯有德者能以寬服民, 其次莫如猛. 夫火烈, 民望而畏之, 故鮮死焉. 水懦弱, 民狎而玩之, 則多死焉. 故寬難.’ 疾數月而卒, 大叔爲政, 不忍猛而寬. 鄭國多盜, 取人于萑苻之澤. 大叔悔之曰, ‘吾早從夫子, 不及此.’ 興徒兵以攻萑苻之盜, 盡殺之. 盜少止.”

18) 張覺, 韓非子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6. p.327. “子產相鄭, 病將死, 謂游吉(即子大叔)曰, ‘我死後, 子必用鄭, 必以嚴莅人. 夫火形嚴, 故人鮮灼, 水形懦, 故人多溺. 子必嚴子之刑, 無令溺子之懦.’ 故子產死, 游吉不忍行嚴刑. 鄭少年相率爲盜, 處于萑澤, 將遂以爲鄭禍. 游吉率車騎與戰, 一日一夜, 僅能克之. 游吉喟然嘆曰, ‘吾蚤行夫子之教, 必不悔于此矣.’”

로 인해 火로 인한 위험은 별로 없지만 水로 인한 위험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子産의 말에 이어 蘇軾은 漢代의 儒家인 翼奉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翼奉論六情十二律，其論水火也，曰，北方之情好也，好行貪狼，南方之情惡也，惡行廉正。廉正故爲君子，貪狼故爲小人。”¹⁹⁾

翼奉은 漢代에 『詩經』 연구에 있어 주된 분과를 이루었던 齊, 魯, 韓, 毛 가운데 『齊詩』 연구의 주된 인물 중 하나이다. 翼奉이 제시한 六情十二律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의 詩學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 중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六情이란 喜, 怒, 哀, 樂, 好, 惡의 여섯 종류의 情感을 말하는데, 李征宇에 의하면 이는 본래 『左傳』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左傳昭公二十五年』에서 “民有好惡喜怒哀樂，生于六氣，是故審則宜類，以制六志.”²⁰⁾라고 한 부분 중의 六志가 곧 六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荀子·正名』에서도 “性之好惡喜怒哀樂謂之情”²¹⁾이라 한 것을 볼 수 있다. 翼奉은 이와 같은 六情의 개념을 바탕으로 六情을 十二律, 干支, 陰陽五行 등의 개념들과 서로 대응시키는 관계론적 논의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性情의 개념을 통해 詩를 해석하는 詩學의 한 이론이었을 뿐 아니라 현실정치에서의 經世致用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²²⁾ 蘇軾에 의해 인용된 부분은 본래 그가 올린 上疏의 내용 중의 일부분으로서²³⁾, 이른바 ‘知下之術’을 그

의 六情十二律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 부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蘇軾은 그 내용 중에서 北方의 情인 好의 行이 貪狼하다는 부분과 南方의 情인 惡의 行이 廉正하다는 부분을 취하여 인용한 것이며, 이 인용부분 뒤에 廉正함이 君子의 바탕이 되고 貪狼함이 小人의 바탕이 된다는 부분을 덧붙였다. 그가 六情 가운데 北方과 南方의 情을 인용한 것은 北方과 南方이 각각 水와 火에 대응하기 때문이며, 앞에서 인용한 子産의 말과 함께 水火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또 다른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子産과 翼奉의 논의를 바탕으로 蘇軾은 水와 火의 속성 및 관계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蘇軾은 子産이 火는 烈하고 水는 弱하다고 한 것으로부터 ‘烈’은 ‘正’을 생하고 ‘弱’은 ‘邪’을 생한다고 하는 논지를 펼쳤는데, 이는 子産이 政치를 寬과 猛의 부류로 나누어 논한 이후 그를 이어 政치를 편 子大叔이 寬의 政치를 펴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던 사실로부터 교훈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水와 火에 관한 翼奉의 설과도 서로 호응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로부터 蘇軾은 火에 속하는 心은 正하고 水에 속하는 腎은 邪하다는 결론까지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나아가 蘇軾은 心은 正하고 腎은 邪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항상 淫하지 않은 것은 心의 官함이 正하여 腎이 그 命을 따르기 때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항상 淫한 것은 心이 官하지 못하여 腎이 政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水火의 설은 蘇軾이 道教 계통의 사상에서 유래한 龍虎鉛汞의 설을 儒家의 사상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점이기도 하였다.²⁴⁾

2) 龍虎鉛汞說

也，樂行奸邪，辰未主之。下方之情，哀也，哀行公正，戌丑主之。辰未屬陰，戌丑屬陽，萬物各以其類應。”

24)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4. “子參二人之學，而爲之說曰，火烈而水弱，烈生正，弱生邪。火爲心，水爲腎，故五臟之性，心正而腎邪。腎無不邪者，雖上智之腎亦邪，然上智常不淫者，心之官正而腎聽命也。心無不正者，雖下愚之心亦正，然下愚常淫者，心不官而腎爲政也。知此則知鉛汞龍虎之說矣。”

19)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4.

20) 李夢生, 左傳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4. p.1147.

21) 김학주 역. 순자. 을유문화사. 2001. p.743.

22) 李征宇, 『齊詩』情性論新探. 中北大學學報. 2012年 第28卷 第2期. p.107.

23) 班固. 漢書卷七十五. 睦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中華書局. 2000. pp.3167-3168. “臣聞之于師，治道要務，在知下之邪正。人誠向正，雖愚爲用，若乃懷邪，知益爲害。知下之術，在于六情十二律而已。北方之情，好也，好行貪狼，申子主之。東方之情，怒也，怒行陰賊，亥卯主之。貪狼必待陰賊而後動，陰賊必待貪狼而後用，二陰并行，是以王者忌子卯也。『禮經』避之，『春秋』諱焉。南方之情，惡也，惡行廉貞，寅午主之。西方之情，喜也，喜行寬大，巳酉主之。二陽并行，是以王者吉午酉也。『詩』曰，‘吉日庚午’。上方之情，樂

蘇軾은 子產과 翼奉의 논의에 이어 道教의 전적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였다.

“古之真人論內丹曰，五行顛倒術，龍從火裏出，五行不順行，虎向水中生.”²⁵⁾

윗 문장에서 ‘五行顛倒術’ 이하의 표현이 道教內丹의 저작들에서 ‘太白真人曰’ 또는 ‘太白真人歌曰’이라 하면서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때 蘇軾이 언급한 옛 真人은 곧 太白真人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道人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²⁶⁾ 道教內丹의 역사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內丹저작들에 등장하는 太白真人을 唐代 德宗 貞元 년간에 太白山에 은거하면서 수행했던 太白山人 淸虛子 王元正으로 언급한 예가 있는데²⁷⁾, 그 내용에 의하면 太白真人은 唐宋代 道教內丹의 주류를 이루었던 鍾離權, 呂洞賓, 施肩吾 등의 鍾呂內丹派와 잘 연결될 수 있는 인물이며, 따라서 蘇軾이 언급한 真人이 王元正일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蘇軾은 이와 같은 道教內丹의 龍虎의 설에 기초한 논의를 儒家의 水火의 논의와 결합시켜 자신의 龍虎鉛汞說을 구성한 것인 셈이다. 道教內丹의 저작들에 나타나는 龍과 虎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체 내의 眞氣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실질에 대해 蘇軾은 말하기를, 鉛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虎는 氣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고, 汞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龍은 水濕을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氣는 物이 動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肺에 의해 주관되고, 水 내지 濕이라 하는 것은 肝에 의해 주관된다²⁸⁾. 「龍虎鉛汞說」에서는 龍과 虎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

는데, 즉 龍은 坎의 物로서 汞, 精, 血 등을 뜻하며, 腎에서 出하여 肝에 藏해진다. 그리고 虎는 離의 物로서 鉛, 氣, 力 등을 뜻하며, 心에서 出하여 肺에 의해 주관된다²⁹⁾. 이와 같이 蘇軾이 龍虎鉛汞의 실질을 논한 것에 대해서는 道教內丹의 본래의 전통적인 논의들과 관련하여 일정한 비교고찰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일단 蘇軾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관련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蘇軾에 의하면, 龍이 水에서 出하고 虎가 火에서 出하는 것은 이른바 ‘順行’하는 것으로서 모두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된다³⁰⁾. 龍은 본래 水에서 出하고 虎는 본래 火에서 出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를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한 것은 언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蘇軾이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聲色の 유혹으로 인해 淫邪가 안에서 발하면 壬癸의 英이 아래로 흘러버리거나 腐壞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汞龍이 水에서 出한다고 하며, 이는 곧 心이 官하지 못하여 腎이 政을 행하는 경우에 속한다³¹⁾. 心은 ‘法而正’한 것이고 腎은 ‘淫而邪’한 것이므로, 心이 官하지 못하고 腎이 政을 행할 때 腎의 性인 淫邪함이 드러나면서 水를 의미하는 壬癸의 英 즉 精과 血이 下流하여 소실됨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喜怒哀樂 등의 감정이 心에서 생겨나면서 心이 動하면 氣가 밖에서 應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鉛虎가 火로부터 出한다고 하며, 이는 곧 心이 안에서 動하면 氣가 밖에서 應한다고 하는 것이다³²⁾. 이와 같이 되면 龍과 虎가 각기 水로부터 出하거나 火로부터 出하여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그대로 소

25)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4.

26) 이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內丹 저작으로 그 시기가 비교적 앞선 대표적인 것으로는 唐代의 道士인 施肩吾가 저술한 『西山群仙會真記』를 들 수 있다.

27) 丁培仁, 『靈寶筆法』再研究-附論鍾呂金丹派的丹書與西部區域性. 道教研究. 2007年 第3期. p.37.

28)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4. “何謂鉛? 凡氣之謂鉛, 或趨或蹶, 或呼吸, 或執或擊, 凡動物者皆鉛. 肺實出納之, 肺爲金, 爲白虎, 故曰鉛, 又曰虎. 何爲汞? 凡水皆爲汞, 唾涕膿血, 精汗便利, 凡濕者皆汞也. 肝實宿藏之, 肝爲木, 爲青龍, 故曰汞, 又曰龍.”

29)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75. “龍者, 汞也, 精也, 血也, 出于腎而肝藏之, 坎之物也. 虎者, 鉛也, 氣也, 力也, 出于心而肺主之, 離之物也.”

30)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4. “方五行之順行也, 則龍出于水, 虎出于火, 皆死之道也.”

31)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4. “心不官而腎爲政, 聲色外誘, 淫邪內發, 壬癸之英, 下流爲人, 或爲腐壞, 是汞龍之出于水也.”

32)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4. “喜怒哀樂, 皆出于心者也, 喜則攫拏 隨之, 怒則毆擊隨之, 哀則蹶躅隨之, 樂則拊舞隨之. 心動于內, 而氣應于外, 是鉛虎之出于火者也.”

떨어져 버리게 되며³³⁾, 이는 마치 불이 붙어 타오른 후에는 다시 뿔감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³⁴⁾.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龍과 虎는 出한 후 결국 소실되어 버리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蘇軾은 이와 같은 이치에 대해 옛 眞人의 말을 빌어 ‘順行則爲人, 逆行則爲道’라고 하였는데³⁵⁾, 즉 逆行的 길이야말로 몸을 올바르게 보전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한 것이다. 逆行으로 표현되는 五行顛倒의 이치에 대해 蘇軾은 기본적으로 “五行顛倒術, 龍從火裏出, 五行不順行, 虎向水中生.”이라 한 옛 眞人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蘇軾이 龍을 坎의 物이라 하고 虎를 離의 物이라 함으로 인해, 龍이 火를 쫓아 출하고 虎가 水를 쫓아 生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水와 火가 서로 어울려 生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 셈이다. 즉 水와 火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각자의 속성을 쫓아버리는 모습이 順行的 상태이고, 水와 火가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 逆行的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逆行的 상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蘇軾은 孔子의 말을 인용하면서 생각에 邪함이 없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眞人께서 逆行的 이치로써 가르치신 바, 龍이 火를 쫓아 출하고 虎가 水를 쫓아 生한다고 하신 것이 그것이다. 그 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孔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思無邪’라고 하셨다. 무릇 思함에는 다 邪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思함이 없으면 土木과도 같은 것이다. 어떻게 해야 思함에 邪가 없게 되고, 思함이 없으면서도 土木과 같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결국 無邪의 思의 길이 있을 뿐이다. 無邪의 思를 행하면 君師를 뵈는 것보다

같이 단정하고 장엄하게 되어 일념이라도 放逸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면 마치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思함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는데, 이는 역지로 思함이 없음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성이 無인 까닭이니, 이를 일러 戒라 한다. 戒로부터 定함이 생겨나고, 定하게 되면 出入의 息이 저절로 멈추게 된다. 出入의 息이 멈추면 心火가 다시 타오르지 않게 된다. 心火는 易에 있어 離가 되는데, 離는 麗의 의미로서, 반드시 麗함이 있는 것이지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니, 汞이 그妃가 된다. 炎上하지 않게 된 下야 그妃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水와 火가 합해지면 壬癸의 英이 위로 腦로 흘러들면서 玄英이 넘치게 된다. 鼻液 같은 것도 다 그렇지는 않은데, 腎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汞龍이 火로부터 출한다고 하는 것이다. ……汞龍이 火로부터 출하여 腦로 흘러들면서 玄英이 넘치면 반드시 뿌리로 돌아가게 된다. 心火가 炎上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妃를 쫓게 되는데, 이로 인해 火가 항상 生의 뿌리에 있게 된다. 따라서 壬癸의 英이 火를 얻으면 날로 굳세지면서 그 기운이 四肢에 도달하고 肌膚를 적시면서 날로 강해지게 된다. 그 궁극에 이르게 되면 즉 金剛의 體가 되니, 이를 두고 鉛虎가 水로부터 출한다고 하는 것이다.”³⁶⁾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볼 때, 蘇軾이 말한 逆行的 道는 心의 火가 위로 타오르지 않고 水와 합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며, 이를 위해 心이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 선결조건이 된다. 蘇軾은

33)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4. “有能出于火, 有能出于水. 而復返者乎? 故曰皆死之道也.”

34)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75. “心動則氣隨之而作, 腎溢則精血隨之而流, 如火之有烟, 未有復反于薪者也.”

35)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75. “世之不學道者, 其龍常出于水, 故龍飛而汞輕, 其虎出于火, 故虎走而鉛枯, 此生人之常理也. 順此者死, 逆此者仙. 故眞人之言曰, 順行則爲人, 逆行則爲道.”

36)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64-65. “眞人教之以逆行. 龍從火出, 虎從水生也. 其說若何? 孔子曰, 思無邪. 凡有思, 皆邪也, 而無思則土木也. 孰能使有思而非邪, 無思而非土木乎? 蓋必有無思之思焉. 夫無思之思, 端正莊栗, 如臨君師, 未嘗一念放逸. 然卒無所思, 如龜毛兔角, 非作故無. 本性無故, 是謂之戒. 戒生定, 定則出入息自住, 出入息住, 則心火不復炎. 在易爲離, 離, 麗也, 必有所麗, 未嘗獨立, 而未其妃也. 既不炎上, 則從其妃矣. 水火合, 則壬癸之英上流于腦而溢于玄英, 若鼻液而不咸, 非腎出故也. 此汞龍之自火出者也. ……汞龍之出于火, 流于腦, 溢于玄英, 必歸于根. 心火不炎上, 必從其妃, 是火常在根也. 故壬癸之英, 得火而日堅, 達于四肢, 澁于肌膚而日壯, 究其極, 則金剛之體也. 此鉛虎之自水出者也.”

火의 性을 麗의 글자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易』에서 “離, 麗也”³⁷⁾라고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蘇軾이 이를 언급한 것은 火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에 의지하여 드러나게 되는 존재임을 말한 것으로서, 즉 心이 특정한 외부의 자극에 이끌리게 되면 火가 이에 응하면서 ‘麗’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心이 외부의 자극에 이끌리지 않고 고요한 상태가 되면 心이 ‘麗’함이 없게 되며, 결국 火가 그의 짝인 水를 찾게 된다³⁸⁾. 이는 水와 火가 서로 합해지게 되는 것으로서, 火가 홀로 炎上하여 버리지 않고 水와 합하여 水를 상승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이를 두고 龍이 火로부터 출한다고 하는 것이다. 즉 水의 性을 지니는 龍이 火와 합해져 火의 자리인 위쪽으로 상승하는 것이 곧 龍이 火로부터 출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때 水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 蘇軾은 壬癸의 莢이 腦로 흘러든다고 하였으며, 玄英으로도 표현된 이 壬癸의 莢은 반드시 그 뿌리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였다. 蘇軾은 “臍者, 生之根也”라고 하였는데, 즉 사람이 母體의 내에 있을 때에는 口鼻의 호흡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臍로 호흡을 행하며³⁹⁾, 蘇軾이 말한 바 出入의 息이 멈춘 상태는 곧 이와 같은 胎息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승했던 壬癸의 莢이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臍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그 뿌리로 돌아온 壬癸의 莢은 더욱 강인한 기운을 지니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水로부터 강맹한 기운이 생겨남을 두고 곧 鉛虎가 水로부터 출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면, ‘龍從火裏出, 虎向水中生’의 逆行的 과정은 먼저 心이 定함을 유지함으로써 그 火가 아래로 내려가 水와 합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 된다. 이후 水가 위로 상승하는 것이 ‘龍從火裏出’이 되고, 상승했던 水가 다시 하강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곳에서 더욱 강인한 기운을 출하게 되는 것이 ‘虎向水中生’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心을 고요히 하는 것과 함께 일정한 수련을 동반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順行的 과정이 지속되면 水와 火가 서로 합하지 못하고 각자 소실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이를 蘇軾은 ‘龍飛而汞輕, 虎走而鉛枯’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이들 順行과 逆行의 개념이 五行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五行의 顛倒 내지 逆行의 개념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蘇軾의 논의에서 이와 같은 개념은 水와 火가 본래의 양태에서 벗어나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道教內丹에서의 본래의 논의와 비교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 蘇軾의 龍虎鉛汞說의 연원

蘇軾의 龍虎鉛汞說은 儒家의 설이 결합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道教內丹의 사상체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道教內丹의 전통적인 龍虎鉛汞의 설에 자신의 해석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龍虎鉛汞의 실질 등에 대한 그의 논의가 道教內丹의 전통적인 설에 잘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먼저 蘇軾이 道教內丹의 龍虎鉛汞說을 접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그의 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蘇軾의 경우도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道教內丹의 수련법을 전수받게 된 내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蘇沈良方』의 「龍虎鉛汞說」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어떤 隱者가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람이 正坐하여 눈을 감고 虎息을 고르게 하면서 ‘握固’⁴⁰⁾한 채

37) 金赫濟 校閱. 周易. 明文堂. 1997. p.171. “象曰, 離, 麗也. 日月麗乎天, 百穀草木麗乎土, 重明以麗乎正, 乃化成天下. 柔麗乎中正故亨, 是以畜牝牛吉也.”

38)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76. “蓋離者, 麗也, 着物而見, 火之性也. 吾目引于色, 耳引于聲, 口引于味, 鼻引于香, 火輒隨而麗之. 今吾寂然無所引于外, 火無所麗, 則將安往, 水者其所妃也.”

39)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5. “人之在母也, 母呼亦呼, 母吸亦吸, 口鼻皆閉, 而以臍達, 故臍者, 生之根也.”

40) ‘握固’란 수련을 행하는 중에 손을 두는 모양새를 말하며, 『蘇沈良方』에는 “以拇指掐第二指手紋, 或以四指都握拇指.” 라고 되어 있다. 즉 엄지를 안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검지나 나머지 네 손가락 전체로 拇指를 감싸쥐는 자세를 취

로 마음을 가다듬다가, 호흡이 가늘어지면 천천히 숨을 멈춘다. …… 調息을 행할 때에는 침을 모아 입을 가신 후 입안에 그득해지면 넘기는데, 기운을 운용하여 下丹田에까지 보낸 다음 늘意로써 이를 기른다. 오래 되면 化하여 鉛이 되는데, 이를 ‘虎向水中生’이라 한다.”⁴¹⁾라고 한 것이다. 이 내용에서 蘇軾이 隱者라고 표현한 이는 곧 蘇軾에게 內丹의 수련법을 전수해 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隱者が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의 문제는 蘇軾의 龍虎鉛汞說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다.

蘇軾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있어 이 隱者の 존재를 구체적으로 논한 경우는 吳國富와 昌慶志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吳國富는 이 隱者が 蹇拱辰이라는 道士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²⁾ 蹇拱辰은 北宋 神宗 시기에 成都에서 道士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지방을 유력하였다. 蘇軾의 동생인 蘇轍의 『龍川略志』卷十에 의하면 蹇拱辰은 元祐 연간(1086-1094)에 京師에 이르러 자신의 道法과 의술을 펼치는 한편으로⁴³⁾, 蘇軾, 蘇轍 형제를 비롯한 여러 저명한 인사들과 교류한 후 元祐 3년인 1088년에 廬山으로 돌아갔다. 이 때 蘇軾은 蹇拱辰에게 『黃庭內景經』을 書寫하여 선물로 주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진 여러 人士들의 글의 내용은 蹇拱辰의 수행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다소나마 짐작하게 한다. 예를 들어 蘇轍의 경우 이 『黃庭內景經』에 덧붙여진 「次韻子瞻書黃庭內景卷後贈蹇道士拱辰」이란 글에서 “君訟『黃庭』內外篇，本欲洗心不求仙。”이라 한 부분이 있고, 저명한 화가였던 賀鑄는 「贈

道士蹇拱辰」이라 글에서 “鼎中龍虎煉成寶，筆下鬼神驅作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 蘇軾은 「送蹇道士歸廬山」이란 글에서 “物之有知蓋恃息，孰居無事使出入”이라 하였는데, 이는 閉息의 功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吳國富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蹇拱辰의 중요한 면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상세한 자료는 『佛祖歷代通載』卷十九에 실려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蹇拱辰은 字가 翊之이며 道士의 신분인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張商英이라는 인물이 蹇拱辰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張商英(1044-1122)은 新津(지금의 四川에 속함) 사람으로서 字가 天覺이고 號를 無盡居士라 하였으며, 進士로 급제한 후 벼슬이 宰相에까지 이른 인물이다. 그는 일생 동안 佛道를 숭상하였다고 전해지는데, 蹇拱辰에 대한 그의 글은 蹇拱辰이 廬山の 照覺總禪師를 찾아갈 때 써 준 것으로 되어 있다.⁴⁴⁾ 그 내용을 보면 ‘六寇’라는 용어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拱辰은 『道藏』에 들어 있는 神仙들의 전기들을 본 후 확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자신의 血氣가 강건하여 보고 듣는 것이 총명할 때, 잡다한 소리들이 귀를 감싸거나, 靑·赤·黃·白·黑의 색채가 눈을 어지럽히거나, 달고 기름진 음식들이 입을 어지럽히거나, 진한 향기들이 코에 휘감기거나,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들이 나의 몸을 어지럽히거나, 환희와 걱정이 나의意에 감촉된다. 이 ‘六寇’는 나 자신이 어지러운 바를 틈타 주야로 내 주위를 파고들어 떨어지지 않는다.”⁴⁵⁾

글의 내용 중에서 六寇의 개념은 외재하는 사물이 耳·目·口·鼻·體·意의 여섯 감각의 자극을 통해 心을

한다.

41)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75-76. “有隱者教予曰, 人能正坐, 瞑目調息, 握固定心, 息微則徐閉之. …… 方調息時, 則漱而烹之, 須滿口而後咽, 仍以空氣送之. …… 常以意養之, 久則化而爲鉛. 此所謂虎向水中生也.”

42) 吳國富. 高道蹇拱辰의 修煉思想及其對蘇軾의 影響. 道教論壇. 2011年 第2期. pp.25-29.

43) 蘇轍 撰, 李郁 校注. 龍川略志·費長房以符制服百鬼其後鬼竊其符. 三秦出版社. 2004. p.145. “成都道士蹇拱辰, 善持戒, 行天心正法, 符水多驗, 居京城爲人治病, 所獲不費. 元祐末, 自天壇來, 予問之曰……”

44) 吳國富. 高道蹇拱辰의 修煉思想及其對蘇軾의 影響. 道教論壇. 2011年 第2期. p.25.

45) 吳國富의 上記 논문에서 재인용. 吳國富. 高道蹇拱辰의 修煉思想及其對蘇軾의 影響. 道教論壇. 2011年 第2期. p.25. “拱辰因觀『道藏』神仙傳記, 翻然覺悟. 當吾血氣剛強, 視聽聰明, 嗚呼! 嗚呼! 順吾耳, 靑黃赤白炫吾目, 甘脆膏腴爽吾口, 馨香馥烈適吾鼻, 滑澤纖柔供吾體, 歡欣動蕩感吾意. 此六寇者, 乘吾昏亂, 晝夜與吾相親, 而未嘗相釋也.”

어지럽힘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蹇拱辰은 수련에 있어 心의 문제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內觀, 閉息, 龍虎顛倒 등의 수련방식을 통해 心身 중의 七情六欲을 수렴하고 본래의 心性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昌慶志는 蘇軾이 隱者로부터 배운 龍虎鉛汞의 설이 隋唐代의 저명한 內丹家인 蘇元朗에 기원을 둔 것이라 하였다. 昌慶志의 이와 같은 주장은 蘇軾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 주로 중국의 嶺南지방이며 그 지역의 양생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蘇元朗은 句曲에서 道教에 입문한 이후 隋代 開皇 년간(581-600)에 羅浮山에 기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존의 『古文龍虎經』, 『周易參同契』, 『金碧潛通訣』 등의 內丹 관련 저작들이 그 내용이 난삽하므로 內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龍虎金液還丹通元論』을 저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昌慶志는 蘇軾이 논한 龍虎鉛汞의 설이 蘇元朗의 『龍虎金液還丹通元論』에 뿌리를 둔 것이며, 蘇軾에게 이를 전한 이는 蘇元朗의 먼 제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⁶⁾

이상과 같은 吳國富와 昌慶志의 설을 종합해 볼 때 昌慶志가 蘇元朗의 먼 제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한 인물이 蹇拱辰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보다는 蹇拱辰이 蘇軾과 관련하여 분명한 기록이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蘇軾이 道教 수행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양생에 관한 많은 점들을 익혔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실 蘇軾이 道教養生의 문화를 접한 것은 매우 이른 나이에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는 유년시절에 동생 蘇轍과 함께 그가 태어난 四川 眉山 지역의 道士 張易簡으로부터 道教의 양생법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 바 있으며, 특히 그의 동생인 蘇轍은 이후 수련의 경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⁷⁾ 이처럼 어린 나이부터 道教의 양생문화를

접했던 蘇軾이 이후 더욱 양생에 힘쓰게 된 계기는 오랜 유배생활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가 편적된 지역은 주로 黃州, 惠州 등의 嶺南지역으로서, 蘇軾에게는 매우 생경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蘇軾은 嶺南지역의 다양한 양생문화를 접하면서 이를 힘써 실천하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은 그가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오랜 유배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黃州에서의 유배생활 중이던 元豐 5년(1081)에는 당시 蕪州에서 생활하던 저명한 의가인 龐安時를 알게 되면서, 이후 20여 년 동안 깊은 우정을 이어 나가는 등 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 나갔다⁴⁸⁾.

蘇軾은 道士로부터 전수받은 龍虎鉛汞의 설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를 힘써 실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60에 이른 때인 紹聖 2년(1095)에 그가 유배지에서 동생인 蘇轍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 한 편지에는 그의 이런 노력이 잘 나타나 있는데⁴⁹⁾, 그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올해 이미 나이가 육십에 이르렀는데, 功名은 무너지고 형제들과 부자간에 서로 흠어져 있고, 남방의 삭막한 땅에 머물면서 북쪽으로 돌아갈 날이 아득하기만 하니, 세상사의 쓸쓸한 맛을 느낄 뿐이다. …… 이월 일일 이후로는 세상의 일들을 다 끊고, 배가 고프면 이 餅을 먹을 뿐 湯水는 마시지 않고 음식물도 넘기지 않을 것이니, 잘게 씹어 진액이 고이면 때로 술을 약간 마실 뿐이다. 오후에는 조금 잠을 자고 一更이 되면 누웠다가 三更이 되면 일어나, 앓은 채로 아침을 맞을 것이다. 해가 있으면 해를 따고 달이 있으면 달을 따다가 남은 시간에는 數息을 통해 陰을 煉하거나 아니면 지금 龍虎訣이라 이르는 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백일을 보내면 혹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⁵⁰⁾

46) 昌慶志, 蘇軾貶謫生涯與嶺南養生文化, 柳州師專學報, 第25卷 第5期, p.73.

47) 王啓鵬, 論蘇軾的養生思想, 黃岡職業技術學院學報, 2011年 第13卷 第1期, p.7.

48) 李官火, 蘇軾與龐安時, 浙江中醫雜誌, 2003年 8月號, p.406.

49) 王啓鵬, 蘇東坡寓惠創作四多兩少現象探析, 黃岡師範學院學報, 2003년 第23권 第4기, p.34.

50) 蘇軾, 蘇軾全集第六卷雜記龍虎鉛汞說寄子由, 北京燕山

이상의 편지내용은 蘇軾이 龍虎鉛汞說에 기초한 수련에 힘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龍虎鉛汞說에 기초한 蘇軾의 수련을 蹇拱辰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 본다면, 蘇軾은 蹇拱辰이 京師에 머물던 시기에 이 수련법을 전수받았고, 이후 특히 유배생활 중에 이를 집중적으로 실천한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道教內丹의 원류적인 龍虎의 설과의 비교

蘇軾의 龍虎鉛汞說이 道教內丹의 전통적인 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설은 龍虎鉛汞의 실질이나 그와 관련된 五行論적 논의의 면에서 다소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道教內丹의 원류적인 설과의 비교하여 일정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蘇軾은 龍虎鉛汞의 실질에 대해 龍 내지 汞은 水, 精, 血 등을 의미하고 虎 내지 鉛은 氣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논함에 있어 五行顛倒 내지 五行逆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개념들이 다른 대표적인 內丹저작들에서는 어떻게 논의되어 있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蘇軾은 龍虎의 설과 관련하여 “古之真人論內丹曰, 五行顛倒術, 龍從火內出, 五行不順行, 虎向水中生.”이라 하여 옛 真人의 말을 자신의 설의 근거로 삼으면서 이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를 太白真人의 설이라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內丹 저작으로 그 시기가 비교적 앞선 대표적인 것으로는 唐代的 道士인 施肩吾가 저술한 『西山群仙會真記』를 들 수 있다. 內丹 저작에 나타나는 龍과 虎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체 내의 眞氣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西山群仙會真記』에 의하면 龍은 心

液 내의 正陽之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虎는 腎氣 중의 眞一之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五行論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龍은 본래 東方의 物로서 木에 대응하지만 心液 내에 깃들여 있으므로 火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며, 虎는 본래 西方의 物로서 金에 대응하지만 腎氣 내에 깃들여 있으므로 水로부터 生한다고 하는 것이다⁵¹⁾.

이와 같은 龍과 虎의 본질은 『西山群仙會真記』에 『傳道集』이라는 서명으로 인용되어 있는 『鍾呂傳道集』의 내용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鍾呂傳道集』에는 心과 腎 사이의 氣液의 升降관계의 본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腎水 안에는 受胎 시에 받은 부모의 眞氣가 깃들여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의 腎 안에 숨어 있는 眞氣를 鉛이라 한다. 腎에서 氣가 생겨나고 그 氣 안에는 眞一之水가 들어 있는데, 이를 眞虎라고 하며, 이른바 鉛中銀이라 하는 것이기도 하다. 氣가 腎에서 肝으로 傳하고 또 肝에서 心으로 傳한 다음 心の 氣가 太極의 상태로 되면 液을 생하는데, 그 液 내에는 正陽之氣가 들어 있다. 이른바 朱砂라고 하는 것은 心液을 말하며, 汞이라 하는 것은 心液 중의 正陽之氣를 말하는 것이다.⁵²⁾

윗 내용을 보면 心과 腎 사이의 氣液의 升降관계는 먼저 腎에 깃들여 있는 眞氣가 상승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鍾呂傳道集』에서는 龍과 虎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鉛, 銀, 朱砂, 汞 등의 外丹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出版社. 2009. pp.3381-3382. “吾今年已六十, 名位破敗, 兄弟隔絕, 父子離散, 身居蠻夷, 北歸無日, 區區世味, 亦可知矣. …… 自二月一日爲首, 盡絕人事. 飢則食此餅, 不飲湯水, 不啖食物, 細嚼以致津液, 或飲少酒而已. 午後略睡, 一更便臥, 三更乃起, 坐以待旦. 有日采日, 有月采月, 餘時非數息煉陰, 則行今所謂龍虎訣爾. 如此百日, 或有所成.”

51) 施肩吾. 西山群仙會真記. 中華道藏第十九冊. 華夏出版社. 2004. p.135. “太白真人曰, 五行顛倒術, 龍從火裏出, 五行不順行, 虎向水中生. 龍本東方甲乙之物, 而出于火中者, 心液之上正陽之氣也, 則曰陽龍出自離宮. 虎乃西方庚辛之物, 而生于水中者, 腎氣之中眞一之水也, 則曰陰虎生于坎位.”

52) 沈志剛.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2008. p.73. “腎水之中, 伏藏受胎之初父母之眞氣. 眞氣隱于人之內腎, 所謂鉛者, 此也. 腎中生氣, 氣中眞一之水, 名曰眞虎, 所謂鉛中銀者, 此也. 腎氣傳肝氣, 肝氣傳心氣, 心氣太極而生液, 液中有正陽之氣. 所謂朱砂者, 心液也. 汞者, 心液中正陽之氣.”

는 唐代에 들어 內丹이론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외단 용어들을 차용하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鉛은 外丹에서 본래 黑鉛을 의미하며, 이 黑鉛으로부터 銀이 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朱砂로부터는 水銀 즉 汞이 생하며, 이 汞과 銀이 서로 합쳐져 丹藥이 생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³. 윗 내용에서는 腎氣 중의 眞一之水를 眞虎라 하였으며, 윗 인용문장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心液 중의 正陽之氣가 眞龍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內丹理論의 龍虎鉛汞의 설은 기본적으로 『參同契』 이래의 전통에 의한 것이다. 煉丹理論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이면서 丹經의 王으로 불리웠던 『參同契』에서는 金丹의 원료로 汞과 鉛을 취하면서 그 원리를 陰陽五行說에 기초한 象數易學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葛洪이나 陶弘景 등의 다른 煉丹家들의 저작에서 陰陽五行說이나 鉛汞, 龍虎의 설을 쓰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⁵⁴. 煉丹思想은 隋唐代 이후로 점차 이론적으로 계통화되는 길로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陰陽五行說에 기초한 『參同契』가 이론체계의 중심에 놓이면서 이후의 內丹思想에 이르기까지 주된 사상적 흐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옛 사람들은 鉛과 銀이 공생하는 광석을 黑鉛이라 하였고, 이 黑鉛을 燒煉하여 얻어지는 銀을 鉛의 精으로 보았다. 이는 丹砂에서 汞이 생겨나는 것과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서, 이들 黑鉛, 銀, 丹砂, 汞은 점차 四象과 五行의 원리로 설명되었다. 한 예로 唐代의 道士인 張果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契秘圖』에 의하면, 黑鉛은 北方壬癸水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玄武에 해당한다. 白金으로도 불리는 銀은 黑鉛 중에 공생하는 것으로서, 사실 煉丹家들은 銀이 鉛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 銀은 水中金으로 불리며, 西方庚辛金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 白虎에 해당한다. 朱砂는 南方丙丁火의 기

운을 품고 있으며 朱雀에 해당한다. 汞은 東方甲乙木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靑龍에 해당한다.⁵⁵)

이와 같이 鉛에서 銀이 생하고 朱砂에서 汞이 생한다는 개념을 五行論적으로 보면 水에서 金이 생하고 火에서 木이 생하는 것이다. 金水와 火木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金이 水를 생하고 木이 火를 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煉丹理論에서는 金이 水 안에 깃들어가다가 出하고 木이 火 안에 깃들어가다가 出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母隱子胎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즉 五行論적으로 母에 해당하는 것이 그 子의 안에 깃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母隱子胎의 개념은 『參同契』에서도 鉛과 관련된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⁵⁶), 이는 鉛과 銀의 金水 관계에서의 母隱子胎 개념을 논한 것이다.

內丹理論에서는 龍과 虎로 표현되는 眞氣가 인체의 어느 부분에서 出하는가 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이며, 腎에서 발원하는 眞氣 내에 虎에 해당하는 眞一之水가 깃들여 있음은 水 안에 金이 깃들여 있는 水生金의 관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五行의 相生 관계와는 다른 뒤바뀐 개념 즉 이른바 五行顛倒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心에서 발원하는 眞液 내에 龍에 해당하는 正陽之氣가 깃들여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火生木의 五行顛倒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內丹理論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蘇軾의 논의를 생각해 볼 때, 蘇軾의 논의는 龍虎鉛汞의 실질이나 그 五行論적 속성 등의 면에 있어 다소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鍾呂傳道集』에서는 龍에 대해서는 正陽之氣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虎에 대해서는 眞一之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蘇軾은 龍을 水라 하고 虎를 氣라 하였다. 특히 精과 血을 함께 水로 묶으면서 龍에 배속한 점은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53) 沈志剛. 鍾呂丹道經典譯解. 宗教文化出版社. 2008. p.72. “抱天一之質而爲五金之首者, 黑鉛也. 鉛以生銀, 鉛乃銀之母. 感太陽之氣而爲衆石之首者, 朱砂也. 砂以生汞, 汞乃砂之子. …… 銀汞若相合, 鍛煉自成至寶.”

54) 盖建民. 道教科學思想發凡.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p.190.

55) 胡孚琛, 呂錫琛. 道學通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p.455.

56) 潘啓明. 周易參同契解讀. 光明日報出版社. 2005. p.143. “知白守黑, 神明自來. 白者金精, 黑者水基. 水者道樞, 其數名一. 陰陽之始, 玄含黃芽, 五金之主, 北方河車. 故鉛外黑, 內懷金華. 被褐懷玉, 外爲狂夫. 金爲水母, 母隱子胎, 水爲金子, 子藏母胞.”

는 張景岳의 경우 『類經』에서 腎의 精에 正陽之氣가 들어 있고 心의 血에 眞一之液이 들어 있다고 하면서 精과 血을 心과 腎으로 구분하여 논한 것과 대조된다⁵⁷⁾. 여하튼 蘇軾은 龍과 虎의 속성을 氣와 水라는 개념을 통해 구분함에 있어 기존의 논의들과는 다소 상이한 성격의 논의를 펼친 셈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龍虎 및 鉛汞의 속성에 관한 陰陽의 錯綜이란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蘇軾의 논의에서는 龍과 虎의 五行論적 속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전체적으로 水와 火의 틀 내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內丹理論들의 논의에서는 五行論적 배속관계가 명확하게 언급되는 것을 바탕으로 그 五行顛倒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蘇軾의 龍虎鉛汞說은 전체적으로 본래의 원류적인 內丹理論들과 그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道教內丹의 이론체계 내에서 龍虎鉛汞의 실질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관점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蘇軾의 龍虎鉛汞說도 內丹이론 중의 하나의 해석의 틀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蘇軾의 龍虎鉛汞說과 丹溪虎潛丸의 상관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 蘇軾의 龍虎鉛汞說은 결국 인체 내의 水와 火의 운용에 대해 논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 龍虎鉛汞說을 통한 虎潛丸의 해석이 丹溪의 瀉南補北의 처방에 잘 부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를 위해 먼저 痿證에 대한 丹溪의 瀉南補北의 처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痿證의 병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素問·痿論』에 “五臟因肺熱葉焦，發爲痿躄”⁵⁸⁾이라 하여 ‘肺熱葉焦’

가 痿證의 기본적인 병기로 제시되었다. 痿證에 대한 丹溪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 ‘肺熱葉焦’의 개념을 기초로 하면서 그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병기를 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丹溪는 痿證의 원인이 되는 肺熱이 心火의 亢盛함으로 인한 것이고, 또한 心火의 亢盛함은 腎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痿證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결국 腎水의 부족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腎水의 부족이 痿證으로 이어지는 것과 이를 瀉南補北의 처방으로 다스리는 이치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

“五行 가운데 오직 火만이 둘로 나뉘며, 腎은 비록 둘이지만 그 중 하나에만 水가 자리한다. 그러므로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상태가 되니, 京에서도 이 르기를 一水가 二火를 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며, 이는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金은 그 體가 燥하고 상부에 자리하여 氣를 주관하는데, 火를 두려워한다. 土는 性이 濕하고 중앙에 자리하여 四肢를 주관하는데, 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火의 성은 타고르는 것인데, 만약 嗜慾에 절제함이 없어 水가 자양되지 못하면 火가 畏함이 없이 그 勝하는 바를 侮하게 되니, 肺金이 火邪를 입어 熱하게 된다. 木의 性은 剛急한 것인데, 肺에 邪熱이 들어 金이 자양되지 못하면 木이 畏함이 없이 脾土를 侮하게 되며, 脾土는 木으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된다. 肺에 熱이 있으면 日신을 管攝하지 못하게 되고, 脾에 熱이 있으면 四肢를 쓸 수 없게 되니, 이로써 痿의 병이 생기게 된다. 南方을 瀉하면 肺金이 淸하게 되고 東方이 實하지 않게 되니, 어찌 脾가 상하게 되겠는가? 北方을 補하면 心火가 降하게 되고 西方이 虛하지 않게 되니, 어찌 肺가 상하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陽明이 實해지면 宗筋이 윤택해지면서 뼈를 管束하여 機關을 利하게 하는 것이다.”⁵⁹⁾

57) 張景岳 著. 李志燭 編.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 “稟秘圖曰, 坎爲水爲月, 在人爲腎, 腎藏精, 精中有正陽之氣, 炎升于上. 離爲火爲日, 在人爲心, 心藏血, 血中有眞一之液, 流降于下. 此言坎離之交構也.”

58) 黃帝內經素問. 中醫古籍出版社. 1997. p.70.

59) 朱丹溪 述. 劉鴻鑾 點校. 丹溪治法心要.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390. “五行之中, 惟火有二, 腎雖有兩, 水居其一, 陽常有餘, 陰常不足, 故經曰, 一水不勝二火, 理之必然. 金, 體燥而居上, 主氣, 畏火者也. 土, 性濕而居中, 主四肢, 畏木者也. 火性炎上, 若嗜欲無節則水失所養, 火寡于畏而侮所勝, 肺金得火邪而熱矣.”

痿證의 병기에 있어 腎水의 부족이 본이 되고 肺의 熱이 標가 되는 것이라 할 때, 위 문장의 내용은 腎水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肺와 脾에 熱이 생기면서 痿證이 발생하게 되는 전 과정을 五行의 이치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처방은 南方의 火熱을 瀉하면서 北方의 水를 補하는 滋陰清熱의 방법이 되며, 이로써 결국 脾胃도 實해지는 것은 痿證에 대한 이른바 ‘獨取陽明’의 처방과도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李梴이 虎潛丸에 대해 瀉南補北의 처방을 언급하면서 金, 水의 두 臟을 조리하는 것이 痿證을 다스리는 大法이 된다고 한 것이다. 李梴의 이와 같은 언급과 관련하여 痿證의 기본적인 병기가 되는 肺의 熱이 다스려지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瀉南補北의 처방에 의하면, 南方을 瀉하면 肺金이 清하게 되고, 또한 北方을 補하면 心火가 降하면서 西方이 虛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南方을 瀉한다는 것은 火를 瀉한다는 의미로서, 丹溪가 ‘一水不勝二火’라고 하였듯이 이 火는 心火에만 국한되지 않고 體내의 火熱 전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南方을 瀉하는 것은 이 火를 瀉하기 위한 清熱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火가 瀉해지면서 肺의 熱도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北方의 水를 補하는 것도 결국은 降火의 작용을 일으키면서 火가 金을 犯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南方을 瀉하는 것이든 北方을 補하는 것이든 모두 결국은 火를 瀉하거나 降하게 함을 통해 肺金의 기운을 살리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痿證에 있어 金과 水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면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은 水를 통해 火를 降하게 함으로써 火克金의 과정으로부터 金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瀉南補北의 개념은 본래 『難經』 七十五難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肝實肺虛의 상태를 다스

리는 법으로 되어 있다⁶⁰. 『難經』 六十九難에 의하면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肝實肺虛의 경우에 적용시키면 火를 瀉하고 土를 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瀉南補北의 처방에서는 虛를 補함에 있어 土 대신 水를 補하는 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없어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王安道는 『醫經溯洄集』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는데, 그는 먼저 肝實肺虛에 대해 瀉南補北의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를 水의 부족으로 인해 火가 旺하게 된 상태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七十五難에서 말한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에 대해 ‘子能令母實’은 病因으로 보고 ‘母能令子虛’은 治法으로 보았다. ‘子能令母實’을 病因으로 본 것은 火가 旺함으로 인해 그 母인 木이 實하게 됨을 말한 것이고, ‘母能令子虛’를 治法으로 본 것은 水를 補하여 火를 勝하면 火의 勢가 退하면서 이를 따라 또 木의 勢가 退함을 말한 것이다⁶¹. 그리고 土를 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더 논하기를 肝의 세가 왕성하여 土를 克함이 심하므로 土를 補한다고 하더라도 肝의 왕성한 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또한 土가 金을 生한다고 하더라도 金이 火의 克함을 받고 있어 生하는 바가 잃는 바를 만회할 수 없다고 하였다⁶². 이 내용을 통해 보면 金이 補함을 받게 되는 것은 火가 退하면서 그 克함을 받지 않게

60) 전국한외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법인문화사. 2010. p.172. “經言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瀉南方火, 補北方水,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 ……”

61) 王履 撰. 邢玉瑞, 閻咏梅, 朱岳耕 注釋. 醫經溯洄集.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1. p.42. “水者, 木之母也. 子能令母實一句, 言病因也, 母能令子虛一句, 言治法. 其意蓋曰, 火爲木之子, 子助其母, 使之過分而爲病矣. 今將何以處之? 惟有補水瀉火之治而已. 夫補水者, 何謂也? 蓋水爲木之母, 若補水之虛, 使力可勝火, 火勢退, 而木勢亦退, 此則母能虛子之義, 所謂不治之治也.”

62) 王履 撰. 邢玉瑞, 閻咏梅, 朱岳耕 注釋. 醫經溯洄集.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1. p.43. “今補水而瀉火, 火退則木氣削, 又金不受克而制木, 東方不實矣. 金氣得平, 又土不受克而生金, 西方不虛矣. 若以虛則補母言之, 肺虛則當補脾, 豈知肝勢正盛, 克土之深, 雖每日補脾, 安能敵其正盛之勢哉? 縱使土能生金, 金受火克, 亦所得不償所失矣. 此所以不補土而補水也.”

木性剛急, 肺受邪熱, 則金失所養, 木寡于畏而侮脾土, 得木邪而傷矣. 肺熱則不能管攝一身, 脾熱則四肢不爲用, 而諸痿之病作矣. 瀉南方, 肺金清而東方不實, 何脾傷之有? 補北方, 則心火降而西方不虛, 何肺傷之有? 故陽明實則宗筋潤, 能束骨而利機關矣.”

되고, 또한 木이 土를 克하지 못하면서 土가 金을 生하게 됨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 볼 때 瀉南補北의 처방은 그 기본적인 의의가 水의 부족에 의한 火의 旺함을 다스리는 데 있으며, 이에 대한 처방에 있어 水를 補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 이 점에 있어 王安道는 단지 火만을 瀉하는 것은 잠시 동안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水를 補할 수 있는 약으로 熟地黃, 黃柏 등을 언급하였다⁶³⁾. 이와 같은 王安道の 설은 丹溪의 瀉南補北의 처방을 잘 설명해 주는 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金, 水의 관계를 龍虎鉛汞說의 측면에서 살펴볼 차례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虎潛丸에 관한 『醫宗金鑑』의 내용에 의하면 ‘金從水養’, ‘子隱母胎’ 등의 개념으로 金과 水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水生 金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金과 水의 관계는 단순히 水가 火를 降하게 함으로써 火로부터 金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水가 직접적으로 金을 養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明代의 의가인 趙獻可도 『醫貫』에서 “世人皆曰水生水, 而余獨曰水生金. …… 蓋人肺金之氣, 夜臥則歸藏于腎水之中, 丹家謂之母藏子宮, 子隱母胎.”⁶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水가 金을 生하는 이치를 논한 것으로서 『醫宗金鑑』에서 말한 ‘腎納氣’의 개념과 같은 것이며, 그 이론이 內丹思想의 이론체계와 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虎潛丸이 이와 같은 水生 金의 이치를 통해 痿證을 다스리는 면을 蘇軾의 龍虎鉛汞說을 통해 살펴보면, 李梴은 虎潛丸에 대해 龍虎鉛汞說을 언급하면서 “虎潛火伏而滋陰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즉 虎가 潛하는 것이 곧 火가 伏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滋陰이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蘇軾

은 虎에 대해 “虎者, 鉛也, 氣也, 力也, 出于心而肺主之, 離之物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리상에서 氣로서의 虎가 心으로부터 나와 肺에 의해 주관되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 氣는 心의 動함에 따라 반응하는데, 이에 따라 蘇軾이 “心動則氣隨之而作, 腎溢則精血隨之而流”라고 한 것은 心이 외부의 사물에 動달리는 상태의 動함을 말한 것으로서, 결국 心이 腎을 ‘官’하지 못하여 腎이 ‘溼’하게 되면서 精血이 소실됨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볼 때 精血이 소실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心이 動하면서 氣가 이를 따라 妄動하는 것이며, 이 때 水에 해당하는 精血이 腎의 溼함을 따라 소실되는 것이다. 心이 動하면서 이를 따라 氣가 妄動하는 상태에 대해 蘇軾은 “如火之有烟焰, 未有復反于薪者也.”라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虎走而鉛枯’ 내지 ‘虎出于火’의 상태는 곧 氣와 水 사이에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본래 離의 物로서의 氣가 곧 火로 변해버리는 상태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心과 腎 사이의 관계에 따라 陰에 해당하는 精血의 소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虎에 해당하는 氣는 心에서 나와 肺에 의해 주관되는 것이므로, 氣가 火로 변한다는 것은 곧 肺의 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李梴이 “虎潛火伏而滋陰也”라 한 것은 氣에 해당하는 虎를 降火의 작용을 통해 水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이를 통해 결국 滋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말한 것이다. 이로부터 결국 虎의 氣가 火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水로부터 나와 肺로 가게 되는 이른바 逆行의 道가 행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虎가 潛하여 滋陰이 된다고 한 李梴의 말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清代의 의가인 張璐의 말을 참고해 볼 수 있다. 張璐는 『張氏醫通』에서 虎潛丸에 대해 논하면서 虎骨을 사용하는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虎는 體가 陰의 性을 지니고 있으나 剛猛하여 動하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그것을 潛하게 하려면 補陰藥을 써서 이 약들이 다 그 陰의 性을 자극함으로써 虎가 잠복하여 動하지 않게 한다. 그리하면 그

63) 王履 撰, 邢玉瑞, 閻咏梅, 朱岳耕 注釋. 醫經溯洄集.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1. p.42. “水虛火旺, 而不補水, 則藥至而暫息, 藥過而復作, 將積年累月無有窮已, 安能絕其根哉? 雖苦寒之藥, 通爲抑陽扶陰, 不過瀉火邪而已, 終非腎臟本藥, 不能以滋養北方之真陰也. 欲滋真陰, 舍地黃黃柏之屬不可也.”

64) 趙獻可 撰, 華海清, 李廣華, 徐光丕 校注.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1996. pp.832-833.

剛勁한 힘을 이끌어 하체로 몰리게 할 수 있다.”⁶⁵⁾

이상과 같은 張璠의 논의는 虎潛丸에 들어가는 補陰藥들이 虎로 표현되는 氣 내지 火를 하강하게 하는 효능을 발휘하며, 나아가 虎骨을 補陰藥들과 함께 쓸 경우 剛猛하고 動하는 성질을 지니는 氣가 하체에 보충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醫宗金鑑』에서는 虎潛丸 중의 虎骨에 대해 그 剛勁한 힘에 의한 祛風의 효능을 주로 말하였는데, 張璠는 虎의 氣가 伏하여 하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李梴이 “虎潛火伏而滋陰也”라고 한 것에서 ‘滋陰’의 의미를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때의 滋陰은 虎가 潛함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이는 곧 본래 陰의 性을 지니는 虎가 伏하여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虎가 본래 陰의 性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곧 虎가 水 중에서 生하는 성질이 있는 것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虎가 伏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水 안에 들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氣가 水 안에서 養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虎가 伏하는 것은 곧 龍虎鉛汞說에서 말하는 ‘虎向水中生’의 상태가 되는 셈이다. ‘虎向水中生’의 상태에서는 곧 虎가 水 중에서 生함을 받는 것이며, 이는 결국 肺金의 작용을 행하는 氣가 水 중에서 生하는 것으로서 水生金의 이치에 들어맞는 것이다. 즉 氣가 心에서 出하는 것이 아니라 水 중에서 生하는 것이므로 ‘虎出于火’가 아니라 ‘虎向水中生’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蘇軾의 龍虎鉛汞說을 통해 虎潛丸을 이해하는 것은 肺의 熱이 淸解되는 것 뿐 아니라 肺金의 氣가 水 중에서 生함을 받게 되는 이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고찰

蘇軾은 의학과 양생에 있어 많은 경험을 쌓음으로써 이후 의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다. 특히 蘇軾이 그의 친구인 巢谷으로부터 전해 받은 후 결국 龐安時의 『傷寒總病論』에까지 수록되면서 널리 알려진 聖散子方이란 疫病 처방은 그가 얼마나 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학계에 미친 그의 영향을 생각해 볼 때 李梴이 虎潛丸을 해석하는 데 원용한 龍虎鉛汞說을 이해함에 있어 『蘇沈良方』을 먼저 참고해야 할 당위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蘇軾의 龍虎鉛汞說을 통해 丹溪의 虎潛丸을 설명하는 것은 瀉南補北의 五行論적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체 내의 氣 내지 火의 升降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蘇軾의 龍虎鉛汞說에서 虎는 인체 내에서 精과 血로서의 水와 상대되는 것으로서의 氣를 의미하며, 이 때 痿證의 원인이 되는 肺의 熱은 이른바 ‘虎出于火’의 상태에 의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虎出于火’의 상태에서는 虎가 본래 지니고 있는 動적인 성질이 쉽게 발현되면서 氣가 火로 化하기 쉽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虎潛丸으로 다스림에 있어 그 안의 補陰藥들은 降火의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瀉南補北의 관점에서 보면 五行論적인 면에서 단순히 水를 補함을 통해 火를 降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龍虎鉛汞說의 관점에서는 補陰의 효능을 지닌 藥들이 虎의 바람직한 성질을 이끌어 냄으로써 熱을 다스리게 되는 이치가 잘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清代의 의가인 張璠가 虎潛丸 중의 虎骨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補陰藥들이 虎骨의 陰의 性을 자극한다고 한 것은 곧 이와 같은 이치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虎骨은 氣로서의 虎가 응축된 物로 볼 수 있는 것이다.

痿證에 대한 丹溪의 치법과 虎潛丸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痿證에 대해 丹溪가 기존의 의가들의 이론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그에 대한 새로운 치법을 연구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痿

65) 張璠, 張氏醫通,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930. “虎體陰性, 剛而好動. 故欲其潛, 使威隨其性, 潛伏不動, 得以振剛勁之力, 則下體受蔭矣.”

證의 병기에 대해 丹溪에 앞서 張子和의 경우 역시 腎水가 心火를 勝하지 못하면서 결국 肺에 熱이 생기게 됨을 논한 바 있는데, 그가 이에 대해 취한 처방은 鹽水吐法으로 膈間의 寒熱宿痰이나 宿食, 宿飲을 몰아내는 것에 이어 黃連解毒湯, 瀉心湯, 涼膈散, 柴胡飲子 등의 처방을 쓰는 것이었다⁶⁶⁾. 이와 같은 張子和의 처방은 기본적으로 『內經』에서 말한 “火淫于內, 治以鹹寒”⁶⁷⁾의 의미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寒涼한 성질의 처방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丹溪의 처방은 寒涼한 성질의 약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陰을 補하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陰을 補하는 것이 熱을 다스리는 것과 맞물리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丹溪의 滋陰降火의 처방에 있어 黃柏이나 知母와 같은 찬 성질의 약을 쓰는 것이 후대 의가들의 비판의 논점이 되곤 하였다. 예를 들어 明代의 의가인 趙獻可의 경우는 黃柏과 知母 같은 찬 성질의 약을 쓰는 처방의 한 예로 丹溪의 補陰丸이라는 처방을 언급하였는데, 이 補陰丸은 虎潛丸과 유사한 성격의 처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⁶⁸⁾. 趙獻可는 補陰丸에 들어 있는 黃柏과 知母 등의 찬 성질의 약이 水를 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腎을 상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⁹⁾. 이에 그는 滋陰降火의 처방에 있어 滋陰이 곧 降火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으로⁷⁰⁾, 丹溪가 본

래 滋陰의 要藥으로 腎氣丸을 주로 사용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黃柏과 知母 같은 찬 성질의 약으로 滋陰의 효능을 얻으려 한다고 하기까지 하였다⁷¹⁾. 그는 黃柏과 知母가 지니는 苦寒한 성질이 腎水を 瀉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陰을 補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趙獻可의 입장에서 볼 때 黃柏과 知母 같은 찬 성질의 약을 쓰는 것은 滋陰의 효능을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滋陰을 통한 降火의 효능은 더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黃柏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면, 張璠는 黃柏에 대해 말하기를 痿證을 다스림에 있어 陰을 補하는 약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虎潛丸을 들었다. 張璠는 黃柏이 清熱의 효능을 통해 결과적으로 陰을 堅하게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⁷²⁾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李梴은 痿證에 대해 丹溪의 虎潛丸과 함께 李東垣의 清燥湯을 언급하였는데, 清燥湯은 東垣이 濕熱에 의한 痿證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처방으로서,⁷³⁾ 이 清燥湯에는 黃柏, 黃連과 같은 찬 성질의 약들이 黃芪, 當歸, 生地黄 등의 補氣, 滋陰養血의 효능을 지닌 약들과 함께 쓰이고 있다. 또한 『蘭室秘藏』의 ‘自汗論’에는 東垣이 창제한 當歸六黃湯이 실려 있는데, 이는 陰虛火旺에 의한 盜汗證을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서, 當歸, 生地黄, 熟地黄 등의 滋陰養血의 효능을 지니는 약들이 君藥이 되고, 아울러 黃連, 黃芩, 黃柏 등이 清熱의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熱이 다스려지면 陰이 堅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黃柏, 黃連 등과 같은 찬 성질의 약들은 滋陰의 효능을 지닌 약들과 어울림으로써 비로소 滋陰을 바탕으로 한 降火와 瀉火

66) 張子和 撰. 劉鴻達 點校. 儒門事親. 金元四大家醫學全書. 1992. p.375. “痿之爲狀, 兩足痿弱, 不能行用. 由腎水不能勝心火. 心火上燄肺金, 肺金受火制, 六葉皆焦, 皮毛虛弱, 急而薄着則生痿……予凭『內經』火淫于內, 治以鹹寒, 以鹽水越其膈間寒熱宿痰, 新者爲熱, 舊者爲寒, 或宿食宿飲在上皖者, 皆可涌之. 宿痰既盡, 因而下之. ……心降腎升, 便繼以黃連解毒湯, 加當歸等藥, 及瀉心湯, 涼膈散, 柴胡飲子, 大作劑煎, 時時呷之.”

67) 黃帝內經素問.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45.

68) 補陰丸은 한 종류가 아닌데, 趙獻可가 언급한 補陰丸은 熟地黄, 黃柏, 當歸, 免絲子, 肉蓯蓉, 知母, 枸杞子, 天門冬, 龜板, 山藥, 五味자로 구성되는 것이다.

69) 趙獻可 撰. 華海清, 李廣華, 徐光丕 校注.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1996. pp.852-853. “况補陰丸中, 以黃柏知母爲君, 天麥門冬爲佐. 蓋黃柏苦寒泄水, 天門寒冷損胃, 服之者, 不惟不能補水, 而且有害于腎”

70) 趙獻可 撰. 華海清, 李廣華, 徐光丕 校注.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1996. p.853. “故滋陰降火者, 乃謂滋其陰, 則火自降, 當申講, 不必降火也.”

71) 趙獻可 撰. 華海清, 李廣華, 徐光丕 校注.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1996. pp.868-869. “蓋丹溪心法第一方, 原以腎氣丸爲滋陰之要藥也. 今人不會其意, 以黃柏知母爲君, 概用坎離丸固本之類. 凡此俱是沉寒瀉火之劑. 苦寒極能瀉水, 腎有補而無瀉, 焉能有裨于陰哉.”

72) 張璠. 張氏醫通.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41. “火熱亢甚, 津液耗竭, 不能榮養百骸, 手足痿弱, 不能收持, 反似癱濕之證, 養陰藥中, 必加黃柏以堅之, 如虎潛丸之類.”

73) 李杲 撰. 高文壽 點校. 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1992. p.592. “燥金受濕熱之邪, 絕寒水生化之源, 源絕則腎虧, 痿厥之病大作. 腰以下痿軟癱瘓不能動, 行走不正, 兩足軟側, 以清燥湯主之.”

의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黃柏, 黃連 등이 清熱의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이들 약들만의 독립된 기능이 아니고 반드시 陰血 또는 氣를 補하는 약들과의 어울림을 통해서만 해당 병증에 맞는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降火’의 치법은 결국 기본적으로 ‘火’의 원인이 되는 ‘氣’의 기본적인 속성에 바탕을 둔 치법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치를 龍虎鉛汞說과 虎潛丸과의 관계에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虎潛丸은 특히 ‘氣’로서의 虎를 다스리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인데, 이 때 虎가 陰의 性을 지니는 반면에 剛猛하고 動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양면성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虎出于火’의 상태에 있어 이 虎를 하강시키고자 할 때, 虎가 기본적으로 陰의 性을 지니는 것이므로 그 陰의 性을 자극함으로써 虎가 아래로 伏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陰을 補하는 효능을 지니는 약들이라 할 수 있다.

6. 결 론

丹溪의 虎潛丸은 주로 痿證을 다스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처방으로서, 滋陰降火의 치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痿證의 병기에 있어 丹溪는 『內經』 이래의 ‘肺熱葉焦’의 이론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水의 부족을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른바 瀉南補北의 치법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虎潛丸의 경우도 丹溪의 痿證 치법과 관련하여 주로 瀉南補北의 치법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본 논고에서는 明代의 의가인 李梴이 『醫學入門』에서 虎潛丸에 대해 瀉南補北의 치법과 함께 龍虎鉛汞說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면서, 虎潛丸의 효능이 龍虎鉛汞說을 통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龍虎鉛汞說은 본래 道教의 內丹思想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龍虎 내지 鉛汞의 비유적인 개념을 통해 인체 내의 氣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다. 道教內丹의 이론체계가 복잡다단한 만큼 龍虎鉛汞說의 이론체계도 단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

만, 본 논고에서는 『醫學入門』에 언급된 龍虎鉛汞說의 표현상의 특징을 통하여 그 龍虎鉛汞說의 원류를 宋代의 蘇軾에게서 찾고자 하였으며, 蘇軾의 龍虎鉛汞說에 대한 분석을 통해 龍虎鉛汞說과 虎潛丸의 상관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蘇軾은 道教적인 양생문화 및 의학에 익숙한 인물로서, 양생 및 의학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그의 저술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蘇沈良方』은 이 방면의 저술내용들이 후인들에 의해 채록되어 담겨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虎潛丸과 관련하여 “凡人龍常出于水, 龍飛而汞輕. 虎常出于火, 虎走而鉛枯, 虎潛火伏而滋陰也.”라고 하였는데, 『蘇沈良方』에 의하면 여기에서 ‘人’의 의미는 ‘龍出于水’, ‘虎出于火’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逆行하는 상태를 ‘道’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龍出于水’, ‘虎出于火’의 통상적인 상태에서부터 逆行하는 것이 인체 내의 氣의 순환의 바람직한 상태임을 말한 것이다. 또한 蘇軾은 한편으로 일부 儒家의 논의에서 취한 水火論적인 논의들을 바탕으로 龍虎鉛汞說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이로부터 火는 正하고 水는 邪하다고 보는 관점을 心과 腎의 본질적인 속성으로까지 확대하여 이해하였다.

龍虎 및 鉛汞의 개념에 대해 蘇軾은 龍을 汞, 水, 精, 血 등의 개념으로 논하였고 虎를 鉛, 氣 등의 개념으로 논하였다. 蘇軾이 龍虎 및 鉛汞의 개념을 이와 같이 논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표적인 內丹 저작들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龍을 精과 血이란 관점에서 보고 虎를 氣라는 관점에서 본 것은 蘇軾의 龍虎鉛汞說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되며, 이 점은 蘇軾이 접했던 道教 수련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보인다.

蘇軾은 心이 그의 본질인 定함을 유지함으로써 본질적으로 淫邪한 성격의 腎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는 心이 定함을 유지하는 관건으로 孔子的 ‘思無邪’란 말을 인용하였다. 이를 龍虎鉛汞說의 관점에서 보면 心이 외부의 자극에 이끌려 定함을 잃게 되면 이를 따라 氣에 해당하는 虎가 妄動하

게 되며, 이는 또한 水의 淫한 속성을 발현시키면서 水에 해당하는 龍의 망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곧 蘇軾이 말한 ‘人’의 상태로서, 즉 虎와 龍으로 표현되는 氣와 水가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제각기 흩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에 역행하는 ‘道’의 상태는 心이 定함을 유지함으로써 心火가 하강하고 이에 따라 水가 상승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水에 해당하는 龍이 火의 자리로 상승하고 氣에 해당하는 虎가 水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道’의 상태는 胎息 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상 ‘人’과 ‘道’가 혼재된 상태에 있으면서 ‘人’의 상태가 더 우세해지면 곧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龍虎鉛汞의 설을 통해 丹溪의 虎潛丸을 바라볼 때, 이는 기준에 주로 언급되어 온 瀉南補北의 처방보다 虎潛丸이 지니고 있는 降火의 효능을 더욱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된다. 즉 瀉南補北의 이론에 의하면 水를 補함으로써 火가 降하게 된다는 것이 그 주된 요지인데, 이를 龍虎鉛汞說의 관점에서 보면 水를 補함으로써 降火의 작용이 일어나는 이치의 본질적인 면이 虎의 실질에 대한 개념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蘇軾의 龍虎鉛汞說에서 虎를 鉛, 氣에 해당하는 離의 物이라 한 것은 곧 虎가 火의 性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 것이며, 또한 虎가 水 안에서 生하는 것을 ‘道’라 한 것은 곧 火가 水에서 生하는 이치를 말한 것이다. ‘虎向水中生’의 상태가 잘 되지 못하고 ‘虎出于火’의 상태가 우세해지는 것은 火가 水로부터 달아나버림을 의미하며, 이 때 火를 다시 水로 되돌리기 위해 滋陰의 효능을 지닌 약들을 사용하는 것은 곧 火가 본래 水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하는 火의 본래의 속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虎가 水 안에 伏하게 된 상태에서는 강맹한 虎의 氣가 자랄 수 있게 되며, 이는 ‘虎出于火’에서처럼 肺金의 氣가 心火에서 生하여 肺로 가는 것이 아니고 水 증으로부터 生하여 肺로 가는 ‘水生金’의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1. 施仁潮. 朱丹溪論治痿證探要. 江蘇中醫雜誌. 1936年 3期
2. 崔永安, 左小東, 王樹槐. 從朱丹溪“瀉南方, 補北方”論痿證的治療. 江蘇臨床醫藥雜誌. 2000年 第4卷 第1期.
3. 梁昆生. 『蘇沈良方』中蘇軾撰述考. 雲南中醫學院學報. 1987年 第10卷 第2期. pp.54-55.
4. 劉曉東. 試論儒家語境下水火之喻的本義消解. 史學月刊. 2006年 第3期. p.33.
5. 李征宇. 『齊詩』情性論新探. 中北大學學報. 2012年 第28卷 第2期. p.107.
6. 吳國富. 高道蹇拱辰的修煉思想及其對蘇軾的影響. 道教論壇. 2011年 第2期. pp.25-29.
7. 昌慶志. 蘇軾貶謫生涯與嶺南養生文化. 柳州師專學報. 第25卷 第5期. p.73.
8. 王啓鵬. 論蘇軾的養生思想. 黃岡職業技術學院學報. 2011年 第13卷 第1期. p.7.
9. 李官火. 蘇軾與龐安時. 浙江中醫雜誌. 2003年 8月號. p.406.
10. 王啓鵬. 蘇東坡寓惠創作四多兩少現象探析. 黃岡師範學院學報. 2003年 第23卷 第4期. p.34.
11. 丁培仁. 『靈寶筆法』再研究-附論鍾呂金丹派的丹書與西部區域性. 道教研究. 2007年 第3期. p.37.

<단행본>

1. 黃帝內經素問. 中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70, 145.
2. 李樾. 醫學入門. 中國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4, 929.
3. 朱丹溪 著. 劉鴻達 點校. 丹溪心法. 金元四大家醫學全書. 中國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179.
4. 맹용재 역. 산보명의방론.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p.76.
5. 金赫濟 校閱. 周易. 서울. 明文堂. 1997. p.12,

- 171.
6. 張覺. 韓非子譯注. 中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p.327.
 7. 李夢生. 左傳譯注. 中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1106, 1147.
 8. 김학주 역. 순자. 서울. 을유문화사. 2001. p.743.
 9. 班固. 漢書·卷七十五·睦兩夏侯京翼李傳第四十五. 中國 北京. 中華書局. 2000. pp.3167-3168.
 10. 沈括, 蘇軾. 蘇沈良方. 中國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64-65, 75-76.
 11. 蘇轍 撰, 李郁 校注. 龍川略志·費長房以符制服百鬼其後鬼竊其符. 中國 西安. 三秦出版社. 2004. p.145.
 12. 蘇軾. 蘇蘇軾全集(6). 中國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9. pp.3381-3382.
 13. 施肩吾. 西山群仙會真記. 中華道藏第十九冊. 中國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135.
 14. 沈志剛. 鍾呂丹道經典譯解. 中國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8. p.72, 73.
 15. 盖建民. 道教科學思想發凡. 中國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p.190.
 16. 胡孚琛, 呂錫琛. 道學通論. 中國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p.455.
 17. 潘啓明. 周易參同契解讀. 中國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5. p.143.
 18. 張景岳 著, 李志慵 編.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中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
 19. 朱丹溪 述, 劉鴻墜 點校. 丹溪治法心要. 金元四大家醫學全書. 中國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1390.
 20. 張子和 撰, 劉鴻達 點校. 儒門事親. 金元四大家醫學全書. 中國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375.
 21. 趙獻可 撰, 華海清, 李廣華, 徐光丕 校注.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中國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p.832-833, 852-853, 868-869.
 22. 張璠. 張氏醫通. 中國 上海.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41, 93.
 23. 李杲 撰, 高文壽 點校. 脾胃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中國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592.
 24.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172.